

고창 인천강 하구 습지 옛 모습 찾았다

내륙~연안 습지생태계 연결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 완료
멸종위기종 등 932종 동식물 서식
운곡습지 연결 통합 생태관광지로



국내 유일 습지생태축인 고창군 인천강의 기수역 훼손지가 복원됐다. 인천강 하구 전경. <고창군 제공>

국내 유일 습지생태축인 전북자치도 고창군 인천강의 기수역 훼손지가 복원됐다. 기수역 복원으로 고창군은 연안(갯벌)-하구(인천강)-육상(운곡습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유일 습지생태축으로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30일 부안면 용산리 연기마을 앞에서 인천강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역) 훼손지 복원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습지보호지역(72만 2000㎡)으로 지정된 인천강 하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꼬리수리와 수달을 포함한 삿, 담비, 흰목물떼새 등 932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한다. 이러한 생태환경과 동식물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창군은 총사업비 83억5000만원(국비 62억8000만원, 지방비 20억7000만원 등)을 투입해 사유지 매입 등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복원사업을 통해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고, 멸종위기 야생식물 등을 식재하는 등 다양한 생물이 서

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수역 생태복원 사업이 완성됐다. 고창군은 이미 운곡습지(내륙습지)를 생태관광지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인천강 하구습지와 운곡습지를 하나의 통합된 연안-내륙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고창군이 환경 보전과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계기다"며 "운곡습지와 인천강 하구습지를 연결해 더욱 통합적인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예산 11억 확보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탈취탑 설치해 악취 민원 해소

남원시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축산분야 탄소 감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공모'에서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업은 전북지리산낙농업협동조합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한다. 지리산낙협은 지난 1994년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에 1일 60t 규모의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을 준공한 이래 55개 낙농가와 가축분뇨 반입처리 계약을 맺고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자

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상 퇴액비화시설의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30으로 강화됨에 따라 악취 저감시설 장비 보강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함께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해 왔다. 전북지리산낙농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후된 퇴비사 밀폐와 악취 저감 기능이 탁월한 탈취탑 설치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민원 해소에도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1000원 택시' 318개 마을서 운행



농촌마을에서 주민을 태워 면사무소까지 운행하는 복지택시. <정읍시 제공>

내년부터 복지 혜택 확대

정읍시가 복지택시 운영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정읍시는 복지택시가 내년엔 318개 마을로 확대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복지택시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이나 시장이 운행의 필요성을 인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관내 30개 마을을 대상

으로 시작돼 점차 운행 마을이 확대됐다. 올해는 304개 마을에서 운행 중이다. 마을회관에서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요금은 100원, 면소재지까지는 1000원으로 요금 차액은 시가 보전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복지택시 운영을 늘려 교통약자인 농촌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마을 주민과 택시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복지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백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출향인사들 뜻 모아 고향 출산가정에 축하금

운봉읍 기관단체·주민 등 합심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 창립
출생 자녀당 축하금 500만원



지난 28일 남원시 운봉읍사무소에서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 창립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비수도권 전국 대부분 시군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남원의 한 읍 단위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출산율 증가 노력이 시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운봉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협회는 지역 내 출산 가정에 500만원씩의 출생 축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협회는 평소 각별한 고향사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운봉읍 출향인사 김복태 동일운수 회장을 주축으로 결성됐다. 김 회장은 5000만원의 거금도 출연했다. 협회는 김 회장의 출연금과 읍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출생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하고 활기찬 운봉읍 만들기 일환이다. 한편 창립총회에서는 운봉애환회 신동열 회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아울러 이사 7명, 감사 2명의 임원진도 꾸려졌다.

신동열 이사장은 "김복태 회장의 애환심을 본받아 오늘보다 더 나은 운봉읍을 만들기 위해 협회와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는 모가 운봉읍에 주

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경우다. 출생아 1명당 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 500만원의 일시금이 아닌 4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부 장관상

고창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4 장애인일자리사업' 유공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고창군이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현재 배치기관 57개소에 71명의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지원, 문화예술, 바리스타, 장애인주자창 제도요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18세 이상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으로 자립생활의 기반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바리스타, 미술, 음악 등에 재능이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창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장애인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며 더불어 살아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